

한국 중·고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성숙성 진단 및 평가(I) : 사회적 규범 및 책임판단 분석*

송 명 자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이 연구는 사회인습적 영역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도덕판단발달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도덕판단은 사회적 규범판단 내용과 판단수준 및 배려 책임판단과 역할 공정성 책임판단 수준을 포함한다. 규범판단 연구대상은 서울과 부산에서 표집한 중·고·대학 2학년 864명이었으며, 책임판단 연구대상은 대구와 부산에서 표집한 중·고·대학 2학년 576명이었다. 규범판단분석 결과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인의 규범압력에 대한 높은 비판률, 서구에 비해 낮은 규범판단 사고수준 및 사회적 상황에 비해 학교 및 가정상황에서의 높은 비판 및 저항률이 보고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청소년과 성인의 권위관계, 규범판단발달 모형의 적합성, 사회인습영역에서의 발달지체, 규범판단의 상황 특수성의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배려책임판단은 청소년후기에 증가하며, 필요성의 정도 및 관계의 친소성에 따라 판단수준이 달라지며, 성차는 없었다. 공정성 책임판단은 발달적 변화가 없으며, 관계의 친소성 및 인정과 공정성 갈등 정도에 따른 상호작용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 Eisenberg, Gilligan, Miller 등의 서구 연구결과 및 Kohlberg이론체계와 관련지어 논의하였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난 30여년간 도덕성 발달에 관한 대부분의 실증적 연구들은 Kohlberg 이론의 틀에 따라 도덕성 발달단계론을 진단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도덕성발달의 인지이론가들 사이에서 조차 모든 문화권의 모든 개인의 다양한 도덕성을 무리하게 하나의 단계로 획일화시킨 Kohlberg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소리가 높다(문용린, 1986; Smetana, in press).

이 연구의 목적과 관련지어 Kohlberg단계 이론의 한계를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Kohlberg이론에서 도덕성 발달의 최종단계는 정의·공정성 등 모든 문화권에 공통적인 보편적 원리에 도달하는 것이며, 각 사회나 문화권 특유의 인습적 사고는 이행기의 불완전한 도덕성의 한 양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제도·예절·관습 등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규범이 구성원들의 행동에 미치는 도덕적 구속력을 고려할 때 Kohlberg이론의 탈인습적인 문화적 보편성의

이 연구의 목적과 관련지어 Kohlberg단계 이론

* 이 연구는 학술진흥재단 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송명자의 연구(I)과 서봉연의 연구(II)로 나누어 발표됨.

전제는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송명자, 1988, 1992; Nisan, 1987, 1988; Shweder, 1982; Shweder et al., 1987). 최근에 Turiel 등(Turiel, 1983; Smetana, 1983)은 영역구분모형(domain-distinction model)을 제시하여 각 문화권 특유의 사회인습적 사고에 독립적인 도덕성 발달정부를 시사하고 있다.

둘째, Kohlberg이론이 지향하는 정의의 도덕성은 본질적으로 합리성·공정성·평등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타인의 필요성이나 요구에 응해주는 인정·자비·배려 등은 합리성을 위해 채택하는 개인적인 정서가 매개되므로 보편적 도덕률에 부수되는 이차적인 것이다(Higgins et al., 1984; Kohlberg, 1981). 이와 반하여 Gilligan 등(Gilligan, 1977, 1982; Gilligan & Wiggins, 1986)은 타인을 돕고 배려(caring)하는 것을 정의나 공정성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보편적인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Miller 등(Miller & Bersoff, 1992, 1993; Miller et al., 1990)은 인도인들이 대인간 배려를 공정성에 우선하는 절대적인 도덕률로 간주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Gilligan의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

정의와 공정성 대 인정과 배려라는 도덕성의 두 본질은 최근에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이다(이수원과 이현남, 1993; Smetana, in press). Shweder(1990)는 정의와 공정성의 절대적 도덕률을 규범 1(code 1)로 설정하고, 대인간 인정과 배려를 규범 2(code 2)로 설정함으로써 도덕성의 두 본질을 통합하고 있다. 따라서 정의 및 공정성과 인정 및 배려의 두 도덕률의 배타적 중요성을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 근본적으로 두 도덕률은 같은 무게의 중요성을 지니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상황에 따라 그 비중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위에서 제기한 Kohlberg이론의 두가지 한계에 대한 비판에 바탕을 두고, 사회인습적 영역의 대표적인 문

제인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적 규범판단과 도덕성 판단의 수준과 내용을 살펴본다. 아울러 공정성과 인정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배려와 공정성의 두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차적 규범판단의 발달 필요성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회적 규범판단에 관한 연구들은 규범판단 능력의 발달과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는 연구와 집단의 규범을 대표하는 권위자(authority)와 청소년들의 도덕적 판단간의 갈등을 분석한 연구로 대별된다.

Turiel(1978, 1983)은 6세에서 28세 사이 아동과 청소년 14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성취할, 어른에 대한 태도, 의무 등 사회적 규범에 관한 가상적 상황을 제시하고 그 판단 내용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Turiel은 아동의 규범판단은 사회체계와 그 작용을 이해하고 개념화하는 양상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지며, 규범의 수용(affirmation)과 배척(negation)의 양극적 동요를 거쳐 발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Turiel은 사회적 규범판단의 7개 발달수준을 확인해 내었다.

- 수준 1 (6-7세) : 개인의 행동을 확일적으로 규제하는 규범의 무조건 수용
- 수준 2 (8-9세) : 합리적 이유없이 확일적 규범의 배척
- 수준 3 (10-11세) : 사회적 인간관계를 조정하는 규칙체제로서 권위자가 부과하는 규범의 인식과 수용
- 수준 4 (12-13세) : 권위자가 부과하는 규범의 배척
- 수준 5 (14-16세) : 특정 사회체계 유지를 위한 임의적 기준으로서의 규범의 인식 및 수용
- 수준 6 (17-18세) : 사회체계의 임의적 기준으로

2) 사적 규범의 배척

수준 7 (18-25세) : 개인간 상호관점의 차이를 조
[오] 영화년 상화적 상화적용 통합기통으로서
의 규범 인식

이러한 Turiel의 모형은 국내의를 막론하고 실
중적으로 검증된 바 없어, 그 타당성을 의문의
여자로 남아있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
의 규범판단 발달에서 같은 연령에서 같은 수준
이 나타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일상의 사태에서 사회적 규범은 성원들의 행
동을 직접 통제하기 보다는 규범에 맞는 사회적 행
동을 기대하는 사회적 압력에 의해 도덕적 구속
력을 갖는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을 가장 크게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 집단의 권위자이다. 한 집
단의 청소년들의 행동양식과 그 집단의 권위자들
이 기대하는 사회적 규범간에 격차가 클수록 그
집단의 청소년과 권위자들은 함께 도덕적 갈등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근래에 부모나 교
사 등 권위자들과 청소년들 간의 도덕적 갈등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
락에서이다(Killen, 1990; Smetana, 1985, 1988;
Smetana & Asquith, 1994; Tisak, 1986).

사회인습적 도덕성에 있어서 권위자의 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권위에 대한 인식이 어떠
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된
다. 서구에서는 아동의 권위에 대한 인식은 연령
과 사회적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Laupa & Turiel, 1986).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연령·사회적 신
분·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배용광,
1983; 최종고, 1983). 그러나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송명자와 김상운,
1987)에서 사회적 신분과 성은 이미 이들의 도
덕적 판단이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권위요인으
로 작용하지 않는 반면에 연령은 여전히 강력하

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다시 말
해서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은, '해권위' 묘사와
청소년부, 아저씨와 아주머니에 대한 규범적 판단
은 동일하지만, 어른과 아이 간에 큰 권위적 판단
의 차이를 보임으로써 어른의 권위를 여전히 인
정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령의 중요
성은 Song 등(1987)의 연구에서도 입증된 바 있
다.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들의 연령에 따른 성인
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해서 이들과 성인간에 규
범적 판단의 차이에 따른 도덕적 갈등이 없는 것
은 아니다. Smetana(1985, 198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의 청소년들은 본질적으로 도덕적이
거나 인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세대간 갈등이
없으나, 옷차림·머리모양·시간활용 등 개인적
인 사태에 대한 판단의 차이로 인해 청년기 후기
까지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서
대학캠퍼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서울·대구·광주·부산의 9개 대학생 416
명과 교수 109명을 대상으로 세대간 갈등을 분
석한 국내연구(송명자 등, 1991)에서는 머리모양
·아르바이트 등 개인적인 사태에 대한 판단에서
는 세대간 차이가 없으나, 대리시험·시험거부·
귀가시간·리포트 제출기한 등 인습적 사태에 대
한 판단에서 현저한 세대간 차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교수들이 이들 사태에서의 인습적 규범을
아동과 청소년보다 더욱 강력하게 도덕화(mora-
lizing)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습
적이거나 개인적인 문제를 절대적인 도덕적 규범
으로 판단하는 도덕화 경향은 서구의 아동들에게
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나지만(Smetana, 1983), 우
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되풀이 되어 나타난 우리 문화권 특유의 도덕적
사고의 한 단면이다(송명자와 김상운, 1987; 송
명자 등, 1988; 송명자 등, 1991; 이현섭, 1990;
Song et al., 1987).

임을 절대적 도덕적 책무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필요성이 낮거나 타인에 가까울 수록 배려는 개인의 자유선택으로 인식된다. 다시 말해서 미국인에게는 공정성과 배려의 두 행동준거가 공존하며, 맥락에 따라 두 준거의 우선선택이 달라진다. 이에 반하여 인도인은 필요성의 정도, 관계의 친소성과 무관하게 대인간 배려를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도덕률로 받아들인다.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배려판단에 대해 명확한 가설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대인간 배려에 대한 인식이 학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렵다. Eisenberg 등(1991)에 의하면 청년후기에 접어들면서 친사회적 도덕추론은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중·고 대학으로 올라갈수록 배려의 중요성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하여 Miller(1984)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특정 문화권의 신념과 가치에 노출됨에 따라 그 문화권 특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발달적 변화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전통적으로 우리 문화권은 타인에 대한 자비와 배려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학년이 높아갈수록 배려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배려를 필요로 하는 정도와 대상과의 친소성 정도에 따라 배려판단 수준이 달라지므로(Miller & Bersoff, 1992) 연령에 따른 발달적 변화를 예측하기는 더욱 어렵다. 어쨌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보여주는 배려책임판단의 발달적 변화는 우리 문화권의 가치풍토를 반영해줄 것임은 분명하다.

둘째, 배려판단에 대한 성차 역시 상반된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예상하기 어렵다. Gilligan(1977, 1982)은 배려가 여성특유의 도덕성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지지하는 연구결과도 있다(Hunter & Pratt, 1988; Linn, 1991). 이에 반하여 정의와 배려의 도덕성은 성과 관련되는 문

제가 아니라는 비판도 높다(Johnston, 1985; Miller & Bersoff, 1992).

셋째, 우리나라 청소년의 배려판단이 인도인처럼 배려의 필요성의 정도와 대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절대적인 것인지 또는 서구인의 경우처럼 상황을 고려하고 조정하는 판단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이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타인의 어려움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인간관계중심의 도덕성을 지니고 있는지 또는 서구화된 가치로 변모하고 있는가를 밝혀 줄 수 있을 것이다.

타인의 어려움을 도와주고자하는 인정과 배려는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정의 및 공정성과 갈등을 일으킨다. Gilligan 과 Attanucci(1988)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정의와 배려간의 갈등은 청년기에 더욱 흔히 나타난다. 담배 피울 나이가 안된 친구로부터 담배 한갑 사달라고 부탁받는 단순한 일상상황 속에서도 정의와 배려간의 갈등이 내재해 있는 것이다.

청소년은 인간관계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기이므로 인정과 배려판단이 공정성 판단에 선행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또래집단에 대한 맹목적인 배려는 청소년기 비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Eisikovits & Sagi, 1982). 또한 이수원과 이현남(1993)이 지적한 대로 인정으로 결집된 집단내의 비합리성과 집단간 차별의식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성을 지나치게 선호하는 집단의 비인간화 경향 또한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 도시인은 시골사람에 비해 공정성 책무를 중시하지만 그만큼 소외와 단절을 크게 경험하고 있다는 지적(장성수 등, 1990)은 공정성 판단의 역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성 판단과 배려판단의 조화는 도덕적 성숙성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공정성과 인정간에 갈등이 야기되는 상황에서 공정성 판단의 발달적 변화는 예상하기 어렵다.

Kohlberg이론에 비추어보면 공정성은 연령에 따라 직선적인 정적발달을 보이므로 공정성 판단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인정이 대개되는 갈등속에서 공정성 판단을 유지하는 능력이 Kohlberg이론의 발달과정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장하기는 어렵다.

청소년 초기에서 후기로 성장함에 따라 공정성과 인정간에 갈등이 야기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어떠한 조화로운 판단을 보일 것인지는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배려와 인정을 필요로 하는 정도화 대상의 친소관계라는 맥락적 요인에 따라 공정성 판단이 어떻게 조정되는가를 검토해 봄으로써 공정성 갈등상황에서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도덕적 성숙성을 진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연구방법

대상

사회적 규범판단 진단 연구의 대상은 중·고 대학생 864명이었다. 서울은 성서중, 정화여중, 현대고, 승문여고, 서울대와 숭실대 2학년 중에서, 부산은 초읍중, 학산여중, 구덕고교, 경희여고, 동아대와 경성대 2학년 중에서 남녀 동수로 각 집단별 72명을 선정하였다. 대상 중학교는 모두 인문계 학교이며, 서울의 현대고교가 상류계층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중류계층을 대표하는 학교이다. 서울의 대학생 전공은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였으며, 부산의 대학생 전공은 인문대, 자연대, 경영대, 공대에 분포되어 있다.

중고등학교는 각 집단별로 2개 학급에 조사를 실시하여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무선적으로 72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 1명에게 1개의 상황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책임판단을 진단한 연구는 부산과 대구

의 중·고 대학 2년생 57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구에서는 경북중, 성명여중, 대륜고, 신명여고, 경북대학과 영남대학 6개 집단에서, 부산은 경남중, 경남여중, 구덕고, 서강여고, 동아대학, 경성대학에서 각 집단별로 48명을 선정하였다. 각 집단의 24명은 주인공이 '낯선 사람'으로 되어있는 4개의 책임판단 상황에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24명은 상황내용은 동일하나 주인공이 '친구'로 설정된 4개의 상황에 응답하였다.

도구

규범판단에서 사용한 도구는 청소년들이 사회·학교·가정에서 연장자·교사·부모가 기대하는 규범을 어기고 이로 인해 갈등을 경험하는 6개의 상황이다.

상황개발과정은 먼저 서울대학교 1·2학년과 동아대학교 1·2학년 학생 각 50명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대학에서 흔히 경험하는 연장자·교사·부모와의 갈등사태를 자유기술식으로 적어내게 하여, 빈도가 많은 상황을 소재로 하여 성인의 기대와 청소년 욕구간 갈등상황 6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6개 상황으로 부산과 서울의 남녀 중·고·대학생 각 6명에게 면접을 실시한 결과 단순히 갈등상황만을 제시하고 규범판단이나 행동판단을 묻는 것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확실적인 답을 유도하며, 갈등의 원인에 대한 반응을 얻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상황의 내용을 주인공이 규범기대를 어기는 도덕적 일탈행동으로 바꾸고, 이러한 일탈행동에 대한 판단과 그 이유를 물어 규범판단을 진단하는 질문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직접 일들을 마주하는 면접으로 도덕성을 진단하는 것은 사회적 기대효과가 매우 크므로 면접을 버리고 질문지에 자유기술식으로 진술하게 하였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6개 상황의 내용과 각 상황에 대한 3개의 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상황 1: 공중장소에서 소란

2: 자리양보 거부

학교상황 3: 교사가 결정한 규칙에 항의

4: 수업방식 건의

가정상황 5: 친구 또는 배우자 선택 고집

6: 대학(원)진학 문제에서 성역할 편견 저항

질문 1: 학생의 자기주장 행동 정당성 판단과 이유

질문 2: 성인의 자기주장 행동 정당성 판단과 이유

질문 3: 사회적 규범의 수용 및 배척 판단과 이유

사회적 책임판단 연구에서는 주인공의 사회적 책임 불이행 행동이 기술된 가상적인 8개의 상황을 제시하고 책임 불이행 행동의 비허용 정도를 각각 9품등 척도에 반응하도록 하였다. 제시된 상황 중 4개 상황(상황 1·2·3·4)은 배려책임 불이행 상황이며, 나머지 4개(상황 5·6·7·8)는 공정성 불이행 상황이다. 8개 상황은 책임의 유형, 필요성 수준, 대상의 세 준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배려상황 1·2: 교통사고 당한 사람 돕지않기 (낯선이 대 아버지친구)

3·4: 공책 빌려주지 않기(낯선이 대 친구)

공정성 상황 5·6: 음주운전자 면허취소 파주기 (낯선이 대 친구아버지)

7·8: 보너스 더주기(낯선이 대 친구 아내)

개발된 상황의 필요성 수준을 대학생들에게 변별시킨 결과 배려책임 상황은 100%의 일치도를 보였으며, 공정성 책임은 83%의 일치도를 얻었다. 대상·필요성·유형의 세 변인 중 대상은 피험자간, 필요성과 유형을 피험자내 변인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을 피

험자간으로 한 것은 검사실시의 잔여효과가 지나치게 클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4개의 검사는 검사실시효과가 균등화 되도록 24개의 상이한 순서로 제시하였다.

자료수집

규범판단과 책임판단 모두 중·고등학교의 자료수집은 담임교사가 아침이나 정규과정 이후 자율학습시간에 집단적으로 실시하였다. 대학자료는 조교의 협조를 받아 연구보조원들이 개별적으로 수집하였다.

도덕성 질문은 사회적 기대효과가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일체의 인적 사항을 묻지 않고, 진지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도록 숙지시켰다. 검사실시에 소요된 시간은 규범판단 검사는 약 30분이었으며, 책임판단 검사는 약 50분이었다.

자료처리

분석대상자료가 방대한 양의 주관식 기술내용이므로 질적분석은 뒤로 미루고 우선 전체적인 판단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규범판단 분석에서는 세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대상별 비판율 분석(문항 1·2)에서는 한 응답자의 각 상황에 대한 진술 내용 속에 성인과 청소년에 대한 비난·원망·실망·개선사항 지적 등의 언급이 있으면 이 응답자는 각 대상에 대한 비판빈도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동일한 응답자가 동시에 성인에 대한 비판과 청소년에 대한 비판 빈도에 각 한번씩 포함될 수 있다. 각 대상에 대한 비판 빈도의 전체 응답자수에 대한 백분율을 산출하여 청소년 및 성인 비판율로 제시하였다.

둘째, 판단에 대한 이유의 기술분석(문항1·2)에서는 선행연구에 제시된 분석의 준거틀이 없으

므로 각 상황별로 진술된 이유들을 나열한 후 유사한 항목끼리 묶는 절차를 따랐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상황에서는 5개, 학교상황에서는 3개, 가정상황에서는 4개씩의 준거를 식별해 내었다.

셋째, 규범판단수준 분석(문항3)은 서론에서 제시한 Turiel(1978)의 '절대적 수용'으로부터 '통합'에 이르기까지의 7개 수준의 분석체계를 사용하였다. 제시된 6개 상황 중 4개 이상의 상황에 대한 진술내용이 측정수준의 판단과 일치하는 반응자는 해당수준으로 분류하였다. 4개이상의 상황에 대한 반응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반응자는 분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규범판단수준 분석에서 4개 이상의 상황에서 일관성 있게 이행기 또는 동요기적인 판단을 진술한 반응자가 있어, Turiel의 준거에 해당되지 않는 3개의 이행기적 수준을 분석준거에 포함시켰다. 절대적 수용과 배척으로부터 권위의 준거를 따르는 수준으로 옮겨가는 단계에서 제 1이행기, 권위의 수용과 배척이 일관성없이 나타나는 동요기, 권위준거로부터 상호작용의 조정수준으로 이행하는 제 2 이행기로 명명하였다.

규범판단에 있어서 대상별 비판율과 판단이유는 동아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심리를 전공하는 석 박사과정 학생 4명이 분석하였다. 평정자간 일치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충분히 분석방법에 관한 훈련을 시켰으며, 평정자간 일치도가 .80이상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평정자간 차이를 균등화하기 위해 학년·성·상황별 자료를 4명의 평정자에게 고르게 배분하였다. 규범판단 수준분석은 연구자와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교육심리를 전공하는 학생이 별도로 기술된 내용을 각 수준으로 평정하고 그 결과를 통합하였다. 평정자간 신뢰도는 .88이었다. 규범판단 반응빈도는 학년 및 성별로 백분율을 산출하고, 비율간

차이검중에 의해 차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책임판단 분석에서 배려성 수준과 공정성 판단 수준을 9품점척도에 의해 평가한 자료(문항1)는 학년·성·대상·필요성 정도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반복측정식 4원변량 분석에 의해 차의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결 과

1. 사회적 규범판단 분석

가. 대상별 비판율 분석

청소년들의 생각과 성인들이 기대하는 규범간에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나쁘다고 진술한 반응과 규범을 강요하는 성인들이 잘못되었다고 진술한 반응의 비율을 대비시켜 학년 및 성별로 제시한 것이 <표 1>과 <표 2>이다.

아래의 <표 1>과 <표 2>에서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인의 규범압력에 대한 비판율은 청소년들의 행동에 대한 비판율보다 월등하게 높다. 청소년에 대한 비판율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사이에 의미있게 감소($z=2.45; p<.05$)하는 반면에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판단간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 성인에 대한 비판율은 의미있는 연령간 및 성별간 차이가 없다.

성인 및 청소년에 대한 비판율은 상황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일반 사회에서 공중도덕 공공예절 등의 규범으로 인한 갈등에서는 청소년의 잘못을 비판하는 비율이 50%를 상회하나, 학교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규범갈등으로 인해 청소년을 비난하는 비율은 극히 낮다. 성인을 비판하는 비율은 두 영역에서 유사하게 높다.

표1. 학년별 청소년 및 성인에 대한 비판율

학 년		중		고		대		전체	
영역	대상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갈등상황								
사회	공중장소소란	92.7	27.4	83.0	55.0	54.7	51.9	76.8	44.8
	자리양보거부	49.9	77.0	50.2	73.7	51.5	67.2	50.5	72.6
학교	규칙항의	26.6	66.6	10.1	62.2	36.1	80.8	24.3	69.9
	강의방식시정	12.6	83.5	8.6	96.1	2.6	88.9	11.1	89.5
가정	친구선택고집	14.6	76.0	5.5	64.2	9.4	58.0	9.8	66.1
	성역할편견저항	18.0	88.9	0	87.5	6.9	91.7	8.3	89.4
전 체		35.6	69.9	26.2	73.1	28.5	73.1	30.1	72.1

· 각각을 100%로 한 비율임; 각 상황의 학년별 n=48.

표2. 성별 청소년 및 성인에 대한 비판율

학 년		남		여	
영역	대상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갈등상황				
사회	공공장소소란	87.4	32.2	75.3	54.6
	자리양보거부	64.1	74.0	34.7	73.5
학교	규칙항의	18.3	70.6	25.6	64.9
	강의방식시정	10.6	73.9	11.0	88.8
가정	친구선택고집	8.9	73.0	11.0	62.5
	성역할편견저항	2.8	83.9	17.3	93.9
전 체		32.0	68.0	29.2	73.0

· 각각을 100%로 한 비율임; 각 상황의 성별 n=72.

나. 판단이유 분석

1) 사회규범 갈등상황에서의 판단 이유

표3. 사회규범 갈등 판단 이유

공중장소 소란					자리 양보 거부				
준 거	중	고	대	전 체	준 거	중	고	대	전 체
타인피해	64.3	28.8	17.0	36.5	노인권위부정	47.3	33.5	9.4	30.1
청소년 이해	9.9	16.1	25.6	17.2	청소년입장고려	11.5	28.7	31.3	23.8
공중도덕·예의	16.2	23.3	5.5	15.0	노인입장고려	14.7	2.5	22.8	13.0
어른의 권위	1.7	20.8	15.1	12.5	예절	8.5	12.0	15.2	12.1
개인적 권리	0.0	4.6	12.6	9.5	개인적 권리	10.4	7.0	18.8	12.0

공중장소에서 떠드는 행위와 이를 규제하는 성인들의 규범간의 갈등판단에서 타인의 피해를 고려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으나, 고등학교·대학으로 갈수록 그 비율은 급격하게 감소한다. 반면에 청소년들의 심정을 고려받기를 원하거나 성인의 권위를 비판하는 비율은 체계적으로 증가한다.

자리양보에서는 성인의 입장을 이해하기보다는 권위의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으며, 청소년들의 심정이나 입장을 이해받기를 원한다. 두 상황 모두 예절의 문제를 생각하는 비율은 15% 이내이다. 개인적 권리와 선택의 문제로 고려하는 비율이 12%에까지 이르며, 학년에 따라 증가한다.

2) 학교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판단 이유

표4. 학교규범 갈등 판단 이유

규칙함의					강의방식 건의				
준 거	중	고	대	전 체	준 거	중	고	대	전 체
개인사정	38.3	43.6	22.2	34.7	강의방식결합	36.9	22.5	35.4	31.6
규칙준수필요성	26.9	20.0	48.7	31.6	학생권리주장	22.3	10.9	25.0	19.4
심정이해	14.5	23.2	11.4	16.4	학생요구수용거부	10.7	5.6	20.8	12.4

머리길이·과제제출기간 등 명료하게 규정된 학교규칙에 대해서도 개인적 사정이나 개인의 심정을 판단의 준거로 삼는 비율이 50%를 상회하며, 중·고등학생이 특히 높다. 대학생시기에 규칙의 합당성을 고려하는 규칙준거 사고가 급격히 증가한다.

강의방식과 같은 교사와 학생간의 규범 갈등에서는 갈등 자체에 대한 규범적 판단보다는 갈등 발생의 원인을 지적하는 경향이 높다. 강의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율이 가장 많고, 대학생의 경우 학생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데 대한 불만이 비판의 원인이 되는 비율이 높다. 학생의 권

리주장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도 20%에 달한다.

3) 가정규범 갈등 상황에서의 판단 이유

표5. 가정규범 갈등판단이유

친구·배우자 선택

성역할 편견

준 거	중	고	대	전 체	준 거	중	고	대	전 체
환경조건 거부	49.8	59.0	34.8	47.9	남녀평등	51.6	52.3	60.5	54.8
우정(결혼)의 본질	15.8	4.0	38.9	19.6	부모의 의무불성실	11.5	0.0	23.0	11.5
인간성·성격고려	20.5	17.4	17.1	18.5	개인적 권리	17.5	6.2	5.6	9.8
부모의 자식사랑이해	10.0	8.5	16.7	11.8	자녀의 심정	5.8	6.3	9.0	7.1

친구나 배우자선택의 문제로 생긴 부모·자녀 간 갈등원인에 대해 환경조건과 같은 표면적인 원인을 고려하는 비율이 50%를 차지한다. 대학생의 경우 표면적 원인은 급격히 감소하며, 우정 및 애정의 본질, 부모의 사랑 등 보다 심층적인 원인에 대한 인식이 높아간다. 부모의 성역할 편견이 갈등의 원인인 경우에는 남녀평등에 대한 주장이 대학생 시기에 증가한다.

다. 규범판단수준 분석

사회규범을 수용하거나 배척하는 이유를 진술한 내용을 Turiel의 규범판단수준 준거의 틀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규범판단은 성인의 권위를 준거로 규범을 수용하거나 배척하는 사고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비율이 약 75%에 달할 정도로 높다. 이에 반하여 대학생은 약 54%가 사회체제 유지를 위한 임의적 조정수단으로서의 규범을 인식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어, 고등학교와 대학생 시기 사이에 규범판단 수준에 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6. 규범 판단수준 분석

수 준	중	고	대
1. 절대적 수용	3.2	-	-
2. 절대적 배척	3.8	7.4	3.7
3. (제 1 이행기)	7.7	-	-
4. 권위준거에 따른 수용	11.5	16.4	15.4
5. (동요기)	28.9	19.2	-
6. 권위준거에 따른 배척	25.1	23.4	19.0
7. (제 2 이행기)	15.4	15.7	7.5
8. 조정을 통한 수용	-	7.9	23.1
9. 조정을 통한 배척	4.4	8.0	19.8
10. 통합	-	-	11.5

2. 사회적 책임판단분석

가. 배려책임판단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행동의 비허용성을 평가시켜 얻은 배려성 책임판단 수준을 필요성 정도와 대상 관계의 친소성에 따라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7. 배려성 판단 평균 및 표준편차

	필요성 고				필요성 저				
	타인		친구		타인		친구		
	M	SD	M	SD	M	SD	M	SD	
중	남	8.17	1.29	8.02	2.01	6.90	1.60	6.63	1.93
	여	7.19	1.70	8.23	0.99	6.31	1.91	6.75	1.78
고	남	7.77	1.41	8.19	1.68	6.75	1.72	6.77	1.83
	여	7.79	1.70	8.46	0.94	6.56	1.93	7.02	1.44
대	남	8.17	1.14	8.67	0.69	7.38	1.72	7.40	1.65
	여	7.73	1.33	8.75	0.57	7.10	1.34	7.29	1.38

· 각 학년내 성별 n=96

배려성 정도를 학년·성·대상유형 필요성 수준간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 의하면 학년간 주효과가 있었으며, 대상과 필요성 수준에 따른 주효과도 있었다. Tuckey 사후개별 검증에 의해 학년간 주효과를 분석해보면 중학교(M=7.27; SD=1.34)와 대학교(M=7.81; SD=0.95)간 및 고등학교(M=7.41; SD=1.24)와 대학교간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있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간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 <그림 2>에서 보듯이 필요성 수준간 주효과가 커서, 도와줄 필요성이 높은 상황(M=8.09; SD=1.71)에서 돕지 않는 것은 낮은 상황(M=6.90; SD=1.713)에서 돕지 않는 것에 비해 더욱 나쁘게 평가된다.

성과 대상간 및 대상과 필요성간 의미있는 상호작용이 있었다. 각 상호작용을 도식화한 것이 <그림 1>과 <그림 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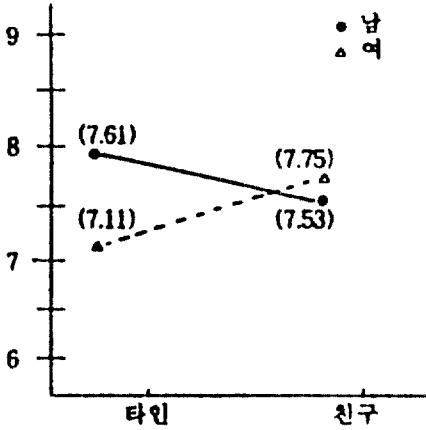
아래의 그림에서 보면 남자는 대상이 타인이나 친구에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배려성을 보여주는 데에 반해 여자는 친구 등 아는 사람을 돕지 않

는 것을 타인을 돕지 않는 것 보다 더욱 나쁘다고 생각한다. 또한 상대방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낮을 때는 대상이 타인인 경우와 친구인 경우의 배려성 간에 차이가 없지만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 친구를 돕지않는 것은 타인을 돕지않는 것보다 더욱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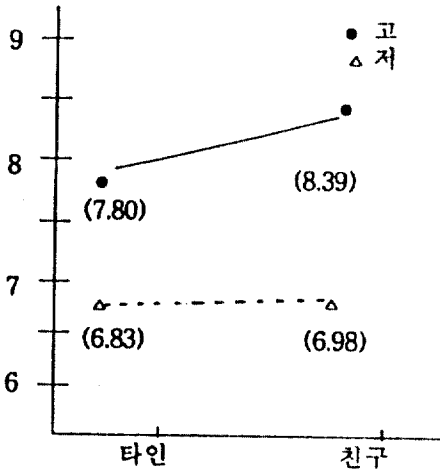
표8. 배려성 판단에 대한 피험자 및 과제유형간 변량분석

	SS	df	MS	F
학년(A)	59.42	2	29.71	10.89 * * *
성(B)	5.15	1	5.15	1.89
피 대상(C)	37.92	1	37.92	13.89 * * *
형 AxB	7.89	2	3.93	1.44
자 AxC	1.44	2	0.72	0.26
간 BxC	21.40	1	21.40	7.84 * * *
AxBxC	5.84	2	2.92	1.07
오차	1539.47	564	2.73	
필요성(D)	407.31	1	407.31	204.41 * * *
AxD	3.38	2	1.69	0.85
BxD	0.01	1	0.01	0.00
피 CxD	14.00	1	19.00	7.03 * *
형 AxBxD	0.90	2	0.45	0.22
자 AxCxD	1.72	2	0.86	0.43
내 BxCxD	0.83	1	0.83	0.42
AxBxCxD	1.51	2	1.75	0.38
오차	1123.84	564	1.99	
전체	1687.75	575		

p<.01 *p<.001



<그림 1> 대상과 성간 상호작용



<그림 2> 대상과 필요성 수준간 상호작용

나. 공정성 책임판단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책임과 개인적인 인정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역할 공정성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갈등강도와 대상 관계의 친소성에 따라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9>와 같고, 학년·성·대상유형·갈등수준간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9. 공정성 책임판단 평균 및 표준편차

	갈등 고		갈등 저		갈등 고		갈등 저		
	타인		친구		타인		친구		
	M	SD	M	SD	M	SD	M	SD	
중	남	6.38	1.93	5.63	1.88	4.63	1.98	5.02	2.03
	여	6.54	1.53	5.46	2.08	4.75	1.98	4.96	2.17
고	남	5.67	1.88	5.50	2.29	4.77	1.75	4.69	2.05
	여	6.31	2.00	5.85	1.52	5.52	2.08	5.69	1.68
대	남	5.67	2.20	4.68	1.64	5.52	1.89	5.54	1.77
	여	5.88	1.52	5.19	1.38	5.50	1.96	5.58	1.91

표10. 공정성 판단에 대한 피험자간 및 과제유형간 변량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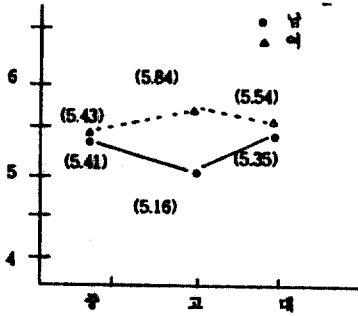
	SS	df	MS	F
학년(A)	1.32	2	0.66	0.17
성(B)	25.38	1	25.38	6.64 * *
피 대상(C)	22.50	1	22.50	5.89 *
형 AxB	3.37	2	11.70	3.36 *
자 AxC	0.07	2	1.68	0.44
간 BxC	2.41	1	0.07	0.02
AxBxC	2155.61	2	1.21	0.32
오차		564	3.82	
필요성(D)	86.13	1	86.13	25.71 * * *
AxD	89.41	2	44.71	13.35 * * *
BxD	0.02	1	0.02	0.01
CxD	48.76	1	48.76	14.55 * * *
AxBxD	6.39	2	3.19	0.95
AxCxD	9.16	2	4.58	1.37
BxCxD	0.38	1	0.38	0.11
AxBxCxD	1.88	2	0.94	0.28
오차	1889.36	564	3.34	
전체	2060.21	57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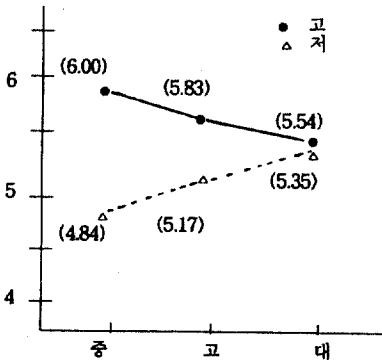
위의 표에서 성·대상 및 갈등간에 주효과가

있었으며, 학년과 대상간 학년과 갈등강도간 및 대상과 갈등강도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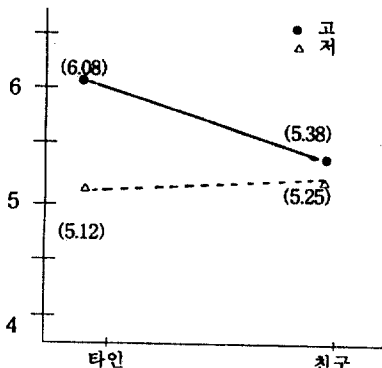
상호작용 양상을 도식화한 것이 <그림 3> <그림 4> <그림 5>이다.



<그림 3> 학년과 성간 상호작용



<그림 4> 학년과 갈등강도간 상호작용



<그림 5> 대상과 갈등강도간 상호작용

<그림 3>에서 보면 공정성 판단의 성차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다가 대학교에서 다시 좁혀진다. 성차의 주효과는 여학생(M=5.60; SD=1.39)이 남학생(M=5.31; SD=1.39)보다 공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다.

<그림 4>에서 중학생은 공정성과 인정간의 갈등이 높은 상황에서 공정성을 더욱 중요시하는 판단을 보이나, 갈등강도에 따른 공정성판단 격차는 점차 줄어들어 대학생은 갈등수준에 관계 없이 동일한 공정성 판단수준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개인적인 인정이 더욱 필요한 상황 (M=5.73; SD=1.89)이 필요성이 낮은 상황(M=5.18; SD=1.89)보다 공정성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판단된다.

<그림 5>에서는 인정과 공정성 갈등이 낮은 상황에서는 대상이 타인인 경우와 친구인 경우에 공정성 판단의 차이가 없으나, 갈등이 높은 상황에서는 타인에 비해 친구에 대한 공정성을 중요시하는 판단이 급격히 감소한다.

논 의

1. 사회적 규범판단 성숙성

이 연구에서 성인에 대한 비판율이 청소년에 대한 비판율의 두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송명자와 김상윤, 1987; Song et al, 1987)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도덕적 판단이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권위요인으로서의 연령의 중요성이 최근에 급격히 쇠퇴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성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은 청소년들의 규범판단 이유의 진술에서도 잘 드러난다. 많은 청소년들은 성인의 권위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를 거부하며, 자신의 입장이나 심정을 성일들로부터 이해받고자하는 사고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

다. 모든 상황에서 10%에서 35%의 범위로 규범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 것은 개인적 권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교사나 부모의 잘못을 과감하게 지적하고 있는 반응비율도 상황에 따라서는 32%에까지 달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근대화를 경험하면서도 싱가포르의 청소년들은 그들의 도덕성의 핵심이 되는 부모나 성인의 공경심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연구결과(Thomas, 1990)와 비교해 볼 때 청소년의 도덕적 판단과 행위의 준거로서 성인의 연령에 따른 도덕적 권위회복의 문제는 앞으로의 도덕성발달 연구의 주요 과제로 제기된다.

이 연구의 가설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중·고교시기에는 성인의 권위를 대체로 수용하나 대학생이 되면서 권위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연구결과에서 대체로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사이에 성인의 권위에 대한 비판은 증가하는 반면에 청소년 자신의 생각과 행위의 잘못을 지적하는 판단은 감소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인의 권위에 대한 저항이 Lapsley 등(1984)의 결과에서 얻은 서구청소년보다 빨리 시작되고 있음은 주목된다. 이는 지금까지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과 교육에 대한 이론적이거나 실제적인 관심이 Kohlberg 이론에 바탕을 둔 정의 합리성 공정성 등의 문제에 주로 기울여졌으며, 사회 인습적 영역 내에서 우리 문화권 특유의 규범적 도덕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규범판단 분석에서 밝혀진 가장 중요한 결과 중의 하나가 규범판단 사고 수준의 문제이다. Turiel(1978, 1983)이 설정한 모형과 동일한 발달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가정과는 달리 우리나라 청소년은 한 단계의 수용과 배척으로부터 다음 단계의 수용과 배척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이행기나 동요기를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발달에 있어서 동요기의 중요성은 이미 U-형 발달현상으로 체계화된 바 있으나(송명자, 1990), 규범판단 능력의 발달에 있어서도 같은 동요기가 나타난 것은 흥미롭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에서 시사된 규범판단 발달모형의 적합성에 관한 논의는 보다 많은 자료를 분석해 본 후로 미루고자 한다.

Turiel(1978)의 규범판단발달 모형에 의하면 중·고등학교 2학년은 대체로 사회체계 유지를 위한 임의적 규준으로서 규범을 수용 또는 배척하는 단계인 수준 5와 6에 이르러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약 75%가 성인의 권위준거에 의해 규범을 판단하는 수준 3과 4에 속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규범판단 수준의 다소의 지체는 예상하였으나, 예상보다 심한 지체가 나타났으므로 앞으로 이 문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상호친근성이 높은 가정 상황보다 사회·학교 상황에서 성인과의 갈등에 대해 더 낮은 비판과 저항을 보일 것이라는 이 연구의 최초의 예상과는 달리 가정과 학교에서 부모와 교사간의 규범갈등에 대한 저항이 사회적 규범 갈등상황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규범 갈등은 특정권위자와의 갈등이라기보다 공중도덕이나 예절 등 관습적인 규범에 대한 저항의 비중이 큰 반면에 학교 가정상황에서의 규범갈등은 교사나 부모와의 직접적인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학교와 가정에서 청소년들의 규범저항이 크다는 결과는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다만 이 연구에서 학교나 가정에서 성인과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들을 다양하게 검토하지 못했으므로, 이 연구의 결과를 학교 가정 상황에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선행연구(송명자 등, 1991)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학교상황에서 갈등의 원인이 성인들의 규범의 지나친

도덕화(moralizing)에 기인한다는 사실은 부분적으로 밝혀졌지만, 가정상황에서 부모·자녀간 규범갈등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부모·자녀간 규범갈등 양상과 그 원인을 진단·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2 사회적 책임판단 성숙성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돕는다는 반응이 높게는 9품등 척도상 8.75로부터 대상이 잘 모르는 낯선 사람인 경우에도 평균점수 6.31을 상회할 만큼 높은 배려판단 수준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에 얼마나 큰 사회적 기대효과가 작용하고 있으며, 도덕성에서 해묵은 논쟁의 대상인 판단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란(Kohlberg, 1984)의 소지는 이 연구결과에 있어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청소년들의 배려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수준은 고등학교 시기까지는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시기 사이에 의미있게 증가한다. 이러한 결과는 친사회적 도덕추론이 청년후기에 감소된다는 Eisenberg 등(1991)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배려판단은 문화적 풍토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Miller 등(1984)의 주장처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는 우리 문화권 특유의 가치 또는 신념체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시기에도 의미있는 증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지면의 한계로 이 연구의 결과에서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판단에 대한 기준이나 판단이유에 대한 진술에서도 중·고등학교 시기의 배려성 정체를 설명해 줄만한 집단 특유의 발달적 경향을 찾아내기 어려웠다. 앞으로 청소년 초기에서 중기 사이에 배

려판단의 발달적 변화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 연구 결과에서 청소년들의 배려성 판단수준은 성차가 없었다. 이는 배려성이 이미 Gilligan(1977, 1982)이 제기한 여성 특유의 도덕성이라는 성차의 문제를 넘어서서 보편적 도덕성의 중요한 한 단면을 반영한다는 Miller 등(Miller & Bersoff, 1992, 1993; Miller, et al., 1993)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배려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 수준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와 대상과의 관계의 친소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배려성 판단이 상황이나 맥락적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배려 양상이 Miller 등(Miller & Bersoff, 1992, 1993; Miller et al., 1990)의 연구결과에서 얻은 인도인의 판단보다는 미국인의 판단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타인에 대한 배려는 중요한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기는 하나, 인도인처럼 상황적 요인과 관계없는 절대적인 도덕률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존적인 특성임을 반영하고 있다. 결과에서 표로 제시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사실은 판단기준을 직접 진단한 자료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났다. 청소년들은 도와줄 필요성이 높은 상황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것은 도덕적 문제로 고려하나, 필요성이 낮은 상황에서 돕고 돕지 않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과 권리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사회적 영역에서의 도덕적 사고와 판단이 얼마나 크게 서구화되어 있는가를 반영한다 하겠다.

청소년들이 개인적인 인정과 공정성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공정성을 지키지 못한 행동을 나쁘다고 판단함으로써 보여준 공정성 판단수준은 대

참 고 문 헌

상이 타인이며 갈등이 낮은 상태에서도 9품점 척도에서 4.63의 평균점수를 상회한다. 이러한 공정성 판단수준은 중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발달적 변화가 없어 정의 및 공정성 판단이 연령과 더불어 꾸준히 증가한다는 Kohlberg이론체계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앞에서 제시한 배려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이 고등학교와 대학교시기 사이에 의미있게 증가하는 것과 관련시켜보면, 이는 청년후기에 청소년의 관심은 Gilligan과 Attanucci(1988)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의와 공정성의 문제보다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정과 배려의 문제에 더욱 기울여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림 4>에서 보듯이 공정성 판단의 상황의존도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대학생 시기에는 상황의 심각성 정도와 무관하게 공정성 판단이 일치하는 것은 Kohlberg이론체계에 부합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은 친구나 아는 사람에 대한 인정이 개입될 때 공정성 판단이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간의 차이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에서만 나타났으며, 필요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대상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은 친구를 위해 맹목적으로 공정성 판단을 흐리지는 않으며,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성이 높아 공정성 갈등이 큰 상황에서만 대상과의 친소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영한다.

청소년의 공정성 판단수준은 고등학교 시기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Gilligan(1982)의 비판의 표적이 되어왔듯이, 정의와 공정성이 전통적으로 남성적 도덕성을 대표하는 특성이었음 생각할 때 이러한 결과는 의외의 것이다. 그러나 이 결과는 성급한 해석보다는 앞으로 보다 정밀한 분석을 통해 재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문용린(1986). 인지발달론의 관점에서 본 도덕성 발달 연구의 문제와 전망. *교육이론*, 1권 1호, 55-83.
- 배용광(1983). 동서양 규범문화의 변화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한국사회의 규범문화*. 서울 :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51-86.
- 송명자(1988).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문화적 특수성의 문제. *한림 정수봉총장 회갑 기념 논총*, 227-241.
- 송명자(1990). U-형 발달 : 이론과 현상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9권, 1호, 33-53.
- 송명자(1992). 도덕판단발달의 문화적 보편성 : 영역구분 모형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11권, 1호, 5-80.
- 송명자·김상윤(1987). 아동의 도덕적 사태판단에 있어서 사회인습적 요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심포지엄 및 학술발표논문 초록 : 한국심리학회*, 140-149.
- 송명자·조용하·설기문·이경숙(1988). 대학 신입생의 도덕적 사태판단 수준 및 개념화 양상의 분석. *학생연구*, 16호, 동아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5-41.
- 송명자·조용하·설기문·김상윤(1991). 한국대학생의 도덕사태 개념화 및 그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29권, 2호, 한국교육학회, 189-206.
- 송명자·조용하·설기문·김상윤(1992). 한국대학생의 도덕사태 개념화 및 그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II). *학생연구*, 20호, 동아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23.
- 이수원·이현남(1993). 한국인의 인정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이해-한국인의 특성 : 심리학적 탐색-*한국심리학회 심포지엄*, 63-80.

- 이현섭(1990). 도덕 및 인습사태에 있어서 일탈 행동의 귀인경향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종고(1989). 한국 전통사회에서의 법, 도덕, 예. 한국 사회의 규범문화.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39-192.
- Eisenberg, N. et al.(1991). Prosocial development in adolescence :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27, 5, 849-858.
- Eisikovits Z. & Sagi A.(1982). Moral development and discipline encounter in delinquent and nondelinquent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 217-231.
- Gilligan, C.(1977). In a different voice : Women's conceptions of morality. *Harvard Educational Review*, 47, 481-517.
- Gilligan, C.(1982). *In a different voice :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Gilligan, C. & Attanucci, A. (1988). Two moral orientations : Gender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Merrill-Palum Quarterly*, 34, 3, 223-237.
- Gilligan, C. & Wiggins, G. (1988). The origins of morality in early childhood relationships. In C. Gilligan, J. Ward & J. Taylor(Eds.), *Mapping the moral domain*.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110-138.
- Higgins, A., Power, C., & Kohlberg, L.(1984). The relations of moral atmosphere to judgments of responsibility. In W. M-Kurtines & J.L. Gerwitz(Eds.), *Morality, moral behavior and moral development*. New York : Wiley, 74-106.
- Hunter, W. & Pratt, M.(1988). What to teach in moral education : Lessons from research on age and sex difference in adult moral reasoning. *ERIC Number* : EJ376670.
- Johnston, D.K.(1985). *Two moral orientations and two problem solving strategies : Adolescents' solutions to dilemmas in fab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School of Education.
- Killen, M.(1990). Social-cognitive development : Domain distinctions and coordinations. *Developmental Review*, 3, 131-147.
- Kohlberg, L. & Krammer, R.(1969)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childhood and adult moral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12, 3-120.
- Kohlberg, L.(1981) *Essays in moral development*. Volume I :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New York : Harper & Row.
- Kohlberg, L.(1984). *The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 The nature and validity of moral stages*. San Francisco : Harper & Row.
- Lapsley, D.K. et. al.(1984). Moral judgment, personality, and attitude to authority in early and late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 527-542.
- Laupa, M., & Turiel, E.(1986). Children's conceptions of adult and peer authority. *Child Development*, 57, 405-412.
- Linn. R.(1991). Sexual and Moral Development of Israeli female adolescents perspectives of Kohlberg and Gilligan. *Adolescence*, 26, 101, 59-71.
- Miller, J.G.(1984). Culture and the development of every social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61-978.
- Miller, J.G. & Luthar, S.(1989). Issues of interpersonal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 A comparison of Indians' and Americans'

- moral judgments. *Social Cognition*, 7, 237–261.
- Miller, J.G., Bersoff D.M. & Harwood, R. L. (1990). Perceptions of social responsibilities in India and in the United States : Moral Imperative or personal deci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Beverley-hills, CA : Sage.
- Miller, J.G. & Bersoff D.M.(1992). Culture and moral judgment : How are conflicts between justice and interpersonal responsibilities resolv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33–47.
- Miller, J.G. & Bersoff D.M.(1993). Culture and affective closeness in the morality of caring. *Paper presented in the symposium on "The Development of morality in family relationships"*, SRCD.
- Moon, Y.L.(1986), A review of cross-cultural studies on moral judgment development using the defining issues test.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986, 24, 2, 95–115.
- Nisan, M.(1987). Moral norms and social conventions : A cross-cultural comparison. *Developmental Psychology*, 23, 719–725.
- Nisan, M.(1988). A story of a pot, or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basic moral evaluations : A response to the critique by Turiel, Nucci, and Smetana. *Developmental Psychology*, 24, 144–146.
- Park, J. Y. & Johnson, E. (1984). Moral development in rural and urban Korea.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5, 1, March, 35–46.
- Rigby, K.(1989) Gender, orientation to authority and delinquency among adolescents : A cross-cultural perspective. *Journal of Moral Education*, 18, 2, 112–117.
- Shweder, R. A. (1982). Beyond self–constructed Knowledge : The study of culture and morality. *Merrill–Palmer Quarterly*, 28, 1, 41–69.
- Shweder, R. A., Mahapatra, M., & Miller, J. G. (1987). Culture and moral development. *The Emergence of morality in young children*. London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weder, R. A.(1990). In defense of moral realism : Reply to Gabennesch. *Child Development*, 61, 2060–2067.
- Smetana J. G. (1983). Social–cognitive development : Domain distinctions and coordinations. *Development Review*, 3, 131–147.
- Smetana, J. G.(1985). Family rules, conventions, and adolescent–parent conflict.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Toronto, April.
- Smetana, J. G.(1988). Adolescent's and parents' conceptions of parental authority. *Child Development*, 59.
- Smetana, J. G.(in press). Morality in content : Abstractions, applications, and ambiguities. R. Vasta(Ed.). *Annals of Child Development*. London : Jessica Kingsley.
- Song, M.J., Smetana, J.G., & Kim S.Y.(1987). Korean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conventional transgressions. *Development Psychology*, 23, 4, 577–582.
- Smetana, J. G. & Asquith, P.(1994). Adolescent's and parents' conceptions of parental authority and personal autonomy. *Child Development*, 65, 1143–1158.
- Thomas, E.(1990). Filial Piety, Social Change, and Singapore Youth. *Journal of moral education*, 19, 3, 192–205.

- Tisak, M.(1986). Children's conceptions of parental authority, *Child Development*, 57, 841-851.
- Turiel, E.(1978). Social regulations and domains of social concepts. In W. Damon (Ed.),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 1. Social Cognition*. San Francisco : Jossey-Bass, 45-74.
- Turiel, E.(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 Morality and convention*.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The Diagnostic Evaluation of Korean adolescents' Psycho-social Maturity (I) : An Analysis of Moral Judgments on Social Conventions and Responsibilities.

Myung-Ja Song

Department of Education

Dong-A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Korean adolescent's moral judgments in the social-conventional domain that have been neglected in previous studies. In this study, adolescent's evaluations of the importance of accepting social conventions such as caring for others in need and maintaining social legitimacy were examined. Differences by grade and gender in the judgments were also analyzed.

Subjects of social conventional study were 864 students sampled from junior high and senior high schools and colleges located in the cities of Seoul and Pusan. For the study of social responsibilities, 576 subjects in the same grades were sampled from the schools in Daegu and Pusan areas. Subjects were asked to write their judgments on the behaviors that deviated from conventions and the reasons for accepting or rejecting them. Judgments on the importance of caring for others and maintaining legitimacy were evaluated by analyzing the responses on the 9-point scale.

Adolescents revealed high level of resistance to the pressure of conventions and using Turiel's model as a reference displayed low developmental level of judgment.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authority relationship between adults and adolescents and adequacy of conventional judgment.

Adolescent's perceived importance of caring for others increased in late adolescence, varied with the degree of necessity and the intimacy of relationship. No gender difference was found. Evaluation on the importance of social legitimacy showed no difference between grades but displayed a significant interaction with intimacy of relationships and the degree of conflict. The results were discussed with reference to the studies by Eisenberg, Gilligan, Miller et al., and Kohlberg's theory of moral development.